

정제마진 뛰고 원유값 부담 줄고… 정유사 3분기 실적 ‘쑥’

복합정제마진 33.6달러 높은 수준
아람코 OSP 3개월째 마이너스 지속
SK이노 1.7조·에쓰오일 1조 영업이익
고마진 2027년까지 이어질 가능성

국내 정유사들이 높은 정제마진과 중동산 원유 도입 부담 완화에 힘입어 3분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복합정제마진은 9월 첫째 주 배럴당 33.6달러로 전주보다 0.3달러 하락했다. 최근 5주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지만 업계가 통상 손익 분기점으로 보는 4~5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국내 복합정제마진은 지난 2월 배럴당 11.8달러에서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시작된 3월 29.3달러로 뛰었다. 8월 말부터 드라이빙 시즌 종료 등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중동과 러시아의 정유설비 가동 차질로 석유제품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에쓰오일 공장 전경.

/에쓰오일

중동산 원유의 가격 조건도 국내 정유사에 유리하게 형성되고 있다. 아람코는 10월 아시아로 공급하는 아랍라이트의 공식 판매가격(OSP)을 오만·두바이유 평균

보다 배럴당 2달러 낮게 책정했다. 9월과 같은 수준으로, 아랍라이트 OSP는 8월부터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OSP는 산유국이 기준 원유 가격에 더

하거나 빼는 할증·할인 금액이다. 아시아 향 OSP가 낮아지면 기준유가에 더해지는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이 높은 국내 정유사들의 조달 부담도 완화된다.

시장에서는 아람코가 아시아 지역의 원유 수요를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낮은 OSP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가격 정책이 지속되면 국내 정유사들의 원유 도입 조건도 당분간 우호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제마진 강세와 OSP 약세는 국내 정유사들의 실적 전망에도 반영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SK이노베이션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조706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7.59% 증가한 규모다. 에쓰오일은 364.23% 늘어난 1조64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정제능력을 보유한 SK에너지 자회사로 두고 있어 정제마진 상승에 따른 석유사업의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 정유 부분의

수익성 개선이 배터리 등 다른 사업의 실적 부담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에쓰오일은 정제마진 강세와 함께 OSP 하락에 따른 원유 도입 부담 완화가 실적 개선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아람코를 최대주주로 두고 중동산 원유를 공급받는 만큼 낮은 OSP가 정유 부분의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정제마진 강세가 올해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동과 러시아의 정유설비 정상화되더라도 석유제품 생산과 수출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공급 부족이 빠르게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동과 러시아의 정유설비 가동 차질로 석유제품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어 단기간에 시장이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의 수급 여건을 고려하면 평균을 웃도는 정제마진이 적어도 202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HD현대, 필리핀과 조선·방산 협력 확대

필리핀서 합정 12척 수주해 6척 인도
정기선 회장·국방장관 협력 확대 논의
수빅 조선소 가동해 현지 생산기반 강화

HD현대와 필리핀과 10년간 이어온 합정 사업을 기반으로 현지 사업 확대에 나선다. 해군 현대화 지원을 이어가는 동시에 수빅 조선 거점을 활용해 조선·방산 분야 협력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HD현대와 필리핀의 합정 사업은 지난 2016년 필리핀 해군의 첫 호위함 계약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이후 신규 합정 건조와 후속 사업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왔다.



지난 7일 HD현대 정기선 회장과 길베르토 테오도로 주니어 필리핀 국방장관이 만나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HD현대 정기선 회장) /HD현대

2016년 필리핀 해군의 첫 호위함 계약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이후 신규 합정 건조와 후속 사업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왔다.

HD현대와 필리핀에서 합정 12척을 수주해 이 가운데 6척을 인도했다.

현지 조선 거점인 수빅의 HD현대필리핀도 지난해 가동을 시작했다. HD현대와 이곳에서 건조한 첫 선박을 최근 인수했으며 내년 선주사에 인도할 예정이다. 향후 운영 상황에 맞춰 생산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테오도로 장관은 HD현대와의 협력이 필리핀 해군 현대화와 조선산업 활성화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HD현대의 현지사업 기반 확대를 환영했다. 양측에 도움이 되는 협력 방안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

포스코, 9년 만에 車강판 설비 신설

4800억 투입해 광양 8CGL 착공
2028년 준공해 연산 45만t 확보

포스코가 4800억원을 투입해 9년 만에 자동차용 용융아연도금강판 생산설비를 신설한다. 저탄소·대형차용 강판 생산 기반을 확충해 고급 자동차강판 경쟁력을 강화한다.

포스코는 8일 광양제철소에서 연산 45만t 규모의 8CGL(Continuous Galvanizing Line)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8년 준공 예정으로 이번 투자로 포스코의 용융아연도금강판 생산능력은 연간 495만t까지 늘어난다.

8CGL은 자동차 외판용 용융아연도금강판 생산에 특화된 설비다. 용융아연도금강판은 강판 표면에 아연을 입혀 내식성과 표면 품질을 높인 제품으로 자동차 외판과 가전 등에 사용된다. 포스코가 용융아연도금강판 생산설비를 신설하는 것은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유혜은 기자

삼성, 세계 6개 도시서 폴드8 옥외광고

국내 사전판매 144만대 역대 최고

삼성전자가 서울과 도쿄, 런던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옥외광고를 내걸며 ‘갤럭시 Z 폴드8’ 알리기에 나섰다. 애플과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공세로 폴더블폰 경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신제품 흥행을 발판으로 시장 선두 굳히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서울 광화문 KT스퀘어를 시작으로 코엑스 케이팝 라이브(K-POP LIVE), 일본 도쿄 시부야역, 영국 런던 파카딜리 서커스와 아우터넷 등 세계 6개 주요 랜드마크에서 ‘웰컴 투 폴더블(Welcome to Foldables)’ 디지털 옥외광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광고는 얇고 가벼운 디자인과 내구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영상에는 ‘울트라 씬(Ultra Thin)’,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폴더블(The world’s lightest fold)’, ‘오래 가도록 설계된(Built to outlast)’ 등 세 가지 메시지를 담았다. 삼성전자는 폴드 시리즈를 거듭하며 두께와 무게,



도쿄 시부야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시리즈를 활용한 ‘웰컴 투 폴더블(Welcome to Foldables)’ 옥외 광고 모습. /삼성전자

내구성을 개선해왔다.

올해 출시된 갤럭시 Z8 시리즈는 초기 판매에서도 전작을 웃도는 성적을 냈다.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폴드8은 지난 7월28일부터 8월3일까지 진행된 국내 사전 판매에서 144만대가 팔리며 역대 갤럭시 스마트폰 사전판매 최고 기록을 세웠다. 사전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은 갤럭시 Z 폴드8을 선택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양성운 기자 ysw@

기아

하반기 대규모 인재 채용

AI·R&D 등 30개 부문 선발

기아가 인공지능(AI)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반기 집중 채용에 나선다. 최근 3년 내 최대 규모로 신입 인재를 선발하고 AI를 활용한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는 새로운 전형을 도입하는 등 미래 산업에 맞춘 인재 확보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아는 오는 9월 15일부터 2026년 하반기 집중 채용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채용에서는 생산·제조, IT, 사업·기획, 경영지원, 연구개발 등 총 30개 부문에서 신입과 경력 인재를 모집한다. 신입 채용은 2027년 2월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 또는 학사·석사 학위 소지자가 대상이며, 지원서 접수는 9월 15일부터 29일까지다. 경력 채용은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채용의 핵심은 AI 시대에 맞춘 평가 방식이다. 기아는 업계 최초로 ‘AI 문제해결력’ 검증 단계를 도입한다.

현대로템, 폴란드형 K2 현지화 성과 첫 공개

K2PL·계열전자 전시회 현지 협력
폴란드산 위장 시스템 K2 전자 적용

현대로템이 폴란드형 K2 전차(K2PL)의 현지화 성과를 처음 선보인다. 폴란드 업체의 장비를 K2 전차에 적용하고 현지 업체와 계열전차를 공동 개발하며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8일(현지시간)부터 11일까지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제34회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MSPO)에 참가한다고 8일 밝혔다.

MSPO는 1993년부터 매년 열리는 동유럽 최대 규모의 국제방산전시회다. 지난해에는 35개국 811개 업체가 참가했다. 5년 연속 참가하는 현대로템은 올해 국내 방산기업 중 최대 규모의 부스를 운영한

다.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에 ‘K2PL존’을 마련한다. 폴란드군 요구에 맞춰 개발하는 K2PL과 교량전차, 개척전차, 구난전차 등 계열전차를 전시한다. K2PL에는 능동방호장치(APS), 드론 재머, 원격사격통제체계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폴란드 방산업체 미란다의 이동식 위장 시스템(MCS)도 처음 공개한다. MCS는 전차가 이동하거나 전투하는 동안에도 사용할 수 있는 위장막으로 야간투시장비와 열상감시장비 등 각종 센서에 탐지될 가능성을 낮춘다. 이번 전시에서는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납품 중인 K2 전차(K2GF)에 MCS를 장착해 선보인다.

폴란드 업체 오브렘과 공동 개발 중인 K2PL 기반 교량전차도 처음 공개한다.

/유혜은 기자